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 유아교육 경험이 교육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김기현*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애 초기 유아교육이나 보육, 사교육 경험 여부가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유치원 취원 여부와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고 뚜렷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가족배경의 영향은 지난 시기동안 교육 경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치원과 사교육 경험의 경우 개인 특성과 가족배경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1. 서론: 문제제기와 분석과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제개편 논의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의 시작 연령을 낮추는 문제,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바꾸는 학기제 개편 문제, 학교급별 구획과 수학 연한을 조정하는 문제, 유아교육의 학제 편입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해 왔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 중에서 취학연령의 하향화나 유아교육의 학제 편입 문제 등은 만 5세 아동을 초등학교 K학년에 편입하거나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최양미·이윤진, 2006; 김정효, 2007).

두 번째는 범정부차원에서 영·유아기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이라는 교육복지정책 수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7).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및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 서비스(희망스타트) 시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kihuns@nypi.re.kr)

사업 등을, 여성가족부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생애초기 교육 기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OECD(2006)에 따르면, 만 5세아 유치원 취원율은 영국 100%, 프랑스 99%, 독일 90%, 미국 90%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9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그것은 45%에 그치고 있다([부록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2006년 현재 82.1%(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를 보여주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낮은 유아교육 취원율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부담률 역시 38%에 불과해 독일(91%), 스웨덴(88%), 프랑스(73%), 영국(70%) 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부록그림 2] 참조). OECD 국가의 GDP 대비 유아교육 교육비(공공 및 민간재원) 지원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1.0%, 덴마크 0.8%, 멕시코 0.6%, 미국 0.5%, 영국 0.5% 등으로 OECD 국가 평균 0.5%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그것은 0.2%에 불과해 일본(0.2%), 호주(0.1%) 등과 더불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05).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4조는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치원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제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교육의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한 공공 지원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생애 초기 가족배경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결손이나 학령기의 교육격차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생애 초기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학습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미국은 1965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 지원정책으로 헤드 스타트(Head Start)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4년부터 저소득층 임신부와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헤드 스타트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1997년부터 미국의 헤드 스타트와 유사한 슈어 스타트(Sure Start)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저소득층 아동 중심에서 지역거주 전체 아동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 초기 아동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효과가 전체 생애 중 영·유아기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Cunha et. al.(2005)은 각 교육단계별로 교육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고숙련, 고임금, 낮은 빈곤율, 낮은 범죄율 등 인적자원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초등이나 중등교육단계에 비해 유아교육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Bruner et al.(2004) 역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중등교육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교육 투자 대비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뇌발달이 주로 영·유아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교육 불평등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입증되고 있는 사실은 생애단계별로 볼 때 가족배경의 영향은 생애 초기단계에 가장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Mare(1980)는 가족배경의 효과가 초기 단계로부터 후기 단계로 옮겨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며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단계에 이르면 가족 배경의 영향은 소멸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 불평등의 역사적 경향과 분리해서 해석해볼 때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교육 성취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격차가 비교적 생애 초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Mare의 발견은 13개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Blossfeld and Shavit, 1993: 17-18)에서도 스위스를 제외하고 동일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정책적·이론적 측면에서 생애 초기의 교육기회와 불평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생애 초기 교육기회가 사회계층별로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사회 진출 이후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규명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생애 초기 교육기회와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애 초기 유아교육이나 보육, 사교육 경험 여부가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지속성과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분석 자료 및 연구 모형을 소개한 후 분석 결과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육지속성과 생애 초기의 교육 불평등

사회계층론과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교육 불평등을 다루는 문헌들은 가족배경과 교육지속성(educational continuation)간의 관계에 주목해 왔다.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시간과 관련하여 가족배경과 교육지속성의 관계가 연령 코호트(age cohort)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해 왔는가, 유지되어 왔는가, 혹은 증가해 왔는가에 대한 검증작업이었다. 이는 특히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간 격차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모아졌다. 두 번째는 개인적 시간과 관련하여 가족배경과 교육지속성의 관계가 상위 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었다.

두 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13개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Blossfeld and Shavit, 1993: 17-18)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자와 관련하여 여러 국가들에서 발견된 사실은 모든 국가에서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가족 배경의 효과는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국가에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가족배경의 영향은 감소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몇몇 반론들과 예외적인 사례들이 이후 발견되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왜 가족배경의 영향은 생애 초기단계에서 더 크고 분명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이와 대한 유력한 가설들이 제안된 바 있다. 첫 번째는 Mare(1980; 1981;

1993)의 선택적 탈락 가설(SAH, Selective Attrition hypothesis)로 그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후기 단계로 옮겨갈수록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후기단계로 옮겨갈수록 가족배경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에 비해 가족 배경의 수준이 더 높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진학에 그친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족배경을 가진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가족배경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이후의 이행과정에서 가족배경의 효과는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곧 감소효과(waning effect)는 가족배경의 분포의 변화가 초래한 통계적 허위(statistical artifact)라는 것이다²⁾.

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생애 과정을 통해 변모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Möller and Karle, 1993). 흔히 생애주기가설(LCH, Life Course Hypothesis)로 불리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점차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개인들의 생애 과정이 이와 같다면 교육 성취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후기 단계로 옮겨갈수록 부모의 영향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³⁾.

이처럼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이 크다는 사실이 몇몇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이후 생애 초기에 출현하는 교육 불평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Entwisle and Alexander, 1992; Lee and Burkam, 2002; McLanahan, 2005). 이 연구들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은 교육 계층화의 과정은 초기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곧 실질적인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학생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기에 이루어진다(Lee and Burkam, 2002; Phillips, Crouse, and Ralph, 1998; Phillips et al., 1998). 또한 가족배경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는 유치원 이후에 확대된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다(Fryer and Levitt, 2004).

또 다른 결론은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은 교육적 성취(educational attainment)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생애 초기의 학업성취도와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은 교사의 기대나 학생들의 학업 기대와 같은 중요한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며(Entwisle and Alexander, 1992), 종단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초기의 교육 경험이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nsminger and Slusarcick, 1992). 헤드 스타트 등 정부의 영유아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페리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Schweinhart, 2005)나 에이비시텔리안 프로젝트(Abcedarian Project)(Campbell and Ramey, 1995), 헤드 스타트(Oden, Schweinhart, and Weikart, 2000) 등을 분석한 연구들은 생애 초기 프로그램들이 학업성취도나 성인기의 생애 결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관심사는 가족배경에 따라 생애 초기 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국내에서 가족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경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없으나

2)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특히 Lucas(1996)는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선택적 탈락의 과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의 영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3) 이에 대한 주장은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부모의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여성부, 2005)에 따르면, 영·유아의 가구소득 수준별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그림 3 참조]). 먼저 유치원의 경우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비율은 12.5%에 머문 반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1.5%로 2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99만원 이하가 34.7%로 350-399만원(37.7%)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가족배경이 생애 초기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홍순옥·최정희, 2007).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생애 초기 교육 경험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유아 교육은 지난 시기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양미·이윤진(2006)에 따르면 해방된 해인 1945년 165개 불과했던 유아교육기관은 2005년 현재 8,275개로 약 50배나 증가하였다([부록그림 4 참조]). 이러한 변화는 같은 기간 초등학교가 2,834개에서 5,646개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2년 3,463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기존의 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변경하여 유아교육의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되었다(최양미·이윤진, 2006). 유치원 원아수의 경우에도 1945년 13,53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541,603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이 크게 늘고 원아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가족배경에 따른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가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는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선행 연구들은 생애 초기의 교육 경험이 이후의 학업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유아교육 경험과 가족 배경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자료 및 분석 모형 등을 소개한다.

 4) 왜 사회계층간 격차는 교육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라프터리와 하우트(Raftery and Hout, 1993)가 제기한 MMI(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과 브린과 골드소프(Breen and Goldthorpe, 1997)의 상대적 위험 회피(relative risk aversion) 가설 등이 있다. MMI 가설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진학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회계층간 격차는 변화하지 않으며 상대적 위험 회피 가설은 하강이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 계층 간에 차이가 없지만 그 결과는 사회 계층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유지된다고 본다. 달리, 노동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중간계급 혹은 노동계층 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중간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적어도 중간계급 수준에 도달해야만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층간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Ⅲ. 분석 자료, 변수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변수

가. 분석자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의 9차년도(2006년) 청년용 부가조사(Youth Module) 자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KYPS: Korea Youth Panel Survey)의 3차년도(2006년)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두 조사 자료는 해당연도에 생애 초기 교육 경험에 대한 회고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조사 자료 모두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전년도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연도의 조사 자료가 모두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KLIPS 자료에서 부의 교육수준은 1차년도(1998년) 개인조사 자료와 2-9차년도(1999-2006년) 신규 조사자 자료에서 가져왔으며 모의 교육수준은 4차년도(2001년) 개인조사 자료와 4-9차년도(2001-2006년) 신규 조사자 자료에서 가져왔다. KYPS에서도 생애초기 교육 경험에 대한 정보는 3차년도(2006년) 학생조사 자료에서 가져왔으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대부분은 1차년도(2004년) 학생조사 자료에서 가져왔다.

이번 분석에서 두 조사 자료를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KLIPS가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업성취도와 같은 변수는 해당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회고적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보다 훨씬 더 신뢰할만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반면 KYPS는 특정 시기(2004년)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생애 초기 교육기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사례수는 연구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분석표에 명기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한 분석 변수들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KLIPS	KYPS
독립변수			
여성	성별, 여성=1	51.4(2,255)	46.4(1,320)
	남성*=0	48.6(2,134)	53.6(1,524)
연령코호트	1974년 이전*	25.1(1,103)	-
	1975-1979년	27.1(1,191)	-
	1980-1984년	21.8(957)	-
	1985-1989년	17.0(748)	-
	1990년 이후	8.9(390)	-
출생지	광역시=1	48.3(2,099)	-
	도*=0	51.7(2,246)	-
성장지	초4 때 거주지역이 서울지역	-	18.1(514)
	도시지역	-	73.2(2,083)
	농촌지역*	-	8.7(247)
사교육	초4 때 사교육 경험=1	-	92.9(2,628)
	미경험*=0	-	7.1(200)
자아존중감	초4 때 학생의 자아존중감	-	21.0(4.1)
부의 교육	아버지의 교육년수	10.6(3.6)	13.8(2.6)
모의 교육	어머니의 교육년수	9.1(3.7)	12.9(2.2)
부의 직업	초 4 때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1	-	13.0(370)
	기타*=0	-	87.0(2,474)
모의 직업	3세 때 어머니가 취업=1	35.8(1,549)	-
	미취업*=0	64.2(2,778)	-
가구소득	초4 때 가구소득(자연대수)	-	5.6(0.5)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	2.9(1.3)	1.1(0.6)
부모애착	초4 때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애착 정도	-	22.4(4.4)
종속변수			
유치원	유치원 취원=1	39.2(1,708)	85.0(2,271)
	미취원*=0	60.8(2,644)	15.0(400)
어린이집	어린이집 경험=1	5.4(237)	24.6(701)
	미경험*=0	94.6(4,152)	75.4(2,143)
사교육	초등학교 전 사교육 경험=1	24.9(1,091)	26.0(739)
	미경험*=0	75.1(3,298)	74.0(2,105)
학업성적	초4 때 학업성적	-	30.5(5.1)

Note: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표차)임 *기준 범주(누락범주)

나.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 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생애 초기 교육경험 여부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도이다. 생애 초기 교육경험은 KLIPS와 KYPS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유치원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경험 여부, 그리고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로 측정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양분되어 있다. 개념적으로도 유아교육이 유치원교육만을 의미하는지, 넓은 의미로 유치원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 관련 부처 역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법적 기반도 전자는 유아교육법을, 후자는 영유아보육법을 기초로 삼고 있다. 교원양성에 있어서도 유치원은 유아교육학과로 양성학과를 제한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유아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일원화나 기능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유치원 취원 여부와 어린이집 경험 여부를 별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다른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 중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강상진 외(2004)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언어사용능력에 대한 교육 효과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비해서 유치원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는 초등학교 교과 관련 학원, 예체능 학원, 그 밖의 학원 및 개인·그룹 과외, 학습지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배운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사교육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사교육이 매우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치원, 어린이집, 사교육 경험으로 측정된 생애 초기 교육 경험 변수들은 KYPS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도에 대한 측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미술, 기타 등 전 과목 반성적을 합산해 사용하였다. KYPS에서는 학생의 자기보고(self report)에 기초한 반등위, 학교등위, 전국규모 모의성적 등위 및 각 과목별 반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은 결측치가 절반을 넘고 반 및 학교 등위 점수는 평균 이상의 값이 높게 나타나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과목별 성적점수를 사용하여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다.

2) 독립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에는 성별, 지역, 연령 코호트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등의 가족배경 변수들과 형제자매수 등 가족구조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성별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를 1로, 남자 청

소년인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학적 변수 중 지역은 KLIPS의 생애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고려하여 출생지역으로 측정하였으며 광역시 여부로 구분하였다. KYPS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거주지역으로 측정하였고 KLIPS와는 달리 농촌지역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지역,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준범주로는 농촌지역이 사용되었다. 연령코호트는 KYPS의 경우 동일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변수에서 제외되었고 KLIPS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되었다. 조사 당시(2006년)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령코호트를 1974년 이전, 1975-79년, 1980-1984년, 1985-89년, 그리고 1990년 이후 등 5년 주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령코호트 구분에는 1980년대 초반 유치원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1990년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가족배경 변수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은 교육년수로 측정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KYPS 분석이에만 사용되었으며 이는 조사당시의 가구소득이며 로그값을 취한 자연대수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월평균가구소득은 “○○님 닥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님 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로 묻고 있다.

부모의 직업은 KLIPS의 경우 15세 무렵의 아버지 직업(아버지 부재 시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과분석에 있어서 시간의 선후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어머니의 직업의 경우 만 3세 취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9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를 분석 변수에 포함시켰다. KYPS의 경우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가족구조 변수로 포함된 형제자매수가 분석 변수에 포함되었다.

KYPS 조사 자료를 이용한 학업성취도 분석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통제 변수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KYPS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6가지 문항을 설문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등이다. 여기에서는 문항에 따라 평가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꾼 후 합산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곧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41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부모 애착 역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관적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는데 부모애착에 대한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6가지 문항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62로 나타나 이 역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4학년 사교육 경험 여부 역시 분석 변수에 추가하였다.

2. 분석모형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생애 초기 교육경험(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전 사교육)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과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성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이다. 전자의 경우 세 가지 교육 경로에 따른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경로로의 이행이 이질적이지 않고 중복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곧 유치원을 취원한 경우에도 초등 전 사교육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0~2세아 때 어린이집을 경험한 후 3~5세 때 유치원에 취원이 가능하다.

IV. 분석 결과

1. 가족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의 차이에 대한 분석(KLIPS)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표 2>와 <표 3>을 통해 연령코호트별로 가족배경에 따른 유아교육 경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치원 취원비율은 최근 연령 코호트로 올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이전의 연령코호트의 취원비율은 23.8%에 불과했으나 1990년 이후 연령코호트의 그것은 88.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졸, 대졸로 구분해 볼 때 모든 교육계층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의 교육이 대졸인 경우 취원비율은 69.4%에서 96.8%로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고 초등학교졸인 경우에도 12.5%에서 73.7%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상위 교육수준을 능가하는 사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자료는 1980년 초반 유치원이 크게 증가한 시점에 20% 이상 취원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령코호트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아교육 경험 비율

(단위: %)

	유치원					어린이집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초졸_부의 교육	12.5	36.2	59.0	78.7	73.7	1.0	1.8	5.9	2.0	15.8
중졸_부의 교육	19.6	49.0	74.8	79.4	82.4	2.0	3.6	6.9	3.9	14.7
고졸_부의 교육	28.9	59.2	83.6	89.2	89.9	1.6	5.3	8.1	9.7	13.1
대졸_부의 교육	69.4	89.9	93.0	96.8	96.8	1.2	4.7	5.2	5.8	19.0
전체	23.8	54.7	78.6	87.3	88.9	1.5	3.8	7.4	7.1	13.3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9차년도 부가조사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985-89년 코호트에서 7.1%에 머물던 어린이집 경험 비율은 1990년대 들어 13.3%로 5.2%p나 상승하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의 교육계층에 따른 취원비율이 유치원과는 판이하다는 점이다. 곧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린이집 경험비율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 1980-84년 연령코호트의 경우 부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경우가 5.9%로 대졸인 경우(5.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가 1975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연령코호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90년 이후 연령코호트의 경우에서 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 19.0%의 경험비율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등에 지원을 통해 입소가 유치원보다는 용이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목적을 해결하는 탁아기능이 강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3세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 상위계층의 가족은 자녀를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낼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⁵⁾.

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삼성복지재단에서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입소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우수한 교육수준이 알려지면서 입소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 연령코호트별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

(단위: %)

	어린이집				
	-1974	1975-79	1980-84	1985-89	1990-
초졸_부의 교육	4.4	13.8	16.0	16.3	26.3
중졸_부의 교육	7.9	15.0	25.0	32.3	29.4
고졸_부의 교육	17.6	26.8	28.9	38.7	36.7
대졸_부의 교육	34.1	34.1	40.5	51.0	61.9
전체	11.8	20.7	27.9	38.2	41.5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9차년도 부가조사

<표 3>은 연령코호트별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등 전 사교육 경험 비율 역시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4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11.8%만이 사교육을 경험하였으나 1990년 이후 코호트의 그것은 61.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부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1974년 이전 코호트의 경우 불과 4.4%의 경험비율을 보여주었으나 1990년 이후 코호트는 26.3%로 증가하였으며 대졸인 경우도 같은 기간 34.1%에서 61.9%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부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경험 비율이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계층에 따른 격차는 유치원의 그것보다 매우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부의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26.3%)과 비교해서 대졸인 경우(61.9%) 2배 이상 높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째,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은 모든 계층에서 증가해 왔으며, 둘째,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부의 교육수준으로 살펴본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경험의 차이는 분명하고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셋 째,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이나 사교육과는 달리 계층간 격차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표 4> 유아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기본모형)

독립변수	유치원 취원/ 미취원	어린이집 경험/ 미경험	사교육 경험/ 미경험
여성(vs. 남성)	.249(.094)**	.276(.162) [†]	.258(.087)**
1975-1979년(C1)	1.131(.118)***	.979(.356)**	.382(.142)**
1980-1984년(C2)	1.919(.146)***	1.602(.361)***	.596(.154)***
1985-1989년(C3)	2.242(.155)***	1.471(.365)***	.849(.148)***
1990년 이후(C4)	2.322(.208)***	2.158(.374)***	.882(.168)***
광역시(vs. 도)	.148(.094)	.259(.159)	.104(.086)
부의 교육	.106(.018)***	.027(.033)	.084(.018)***
모의 교육	.130(.019)***	.010(.036)	.055(.019)**
3세 때 모의 취업(vs. 미취업)	-.100(.096)	-.265(.131)	-.234(.092)*
형제자매수	-.317(.047)***	-.044(.097)	-.258(.053)***
상수항	-2.303(.256)***	-4.621(.557)***	-2.473(.218)***
N(사례수)	3,310	3,310	3,310
-2 LL	3040.423	1342.540	3440.025
Chi-square	1356.855	95.415	389.539
d.f.	10	10	10
Pseudo R ² (Nagelkerke)	.457	.081	.16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 E.)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이제 본격적으로 <표 4>를 통해 유아 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 취원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연령코호트로 올수록 유아교육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사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유치원의 경우와 대동소이한데 다만, 어머니가 3세 때 미취업인 경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코호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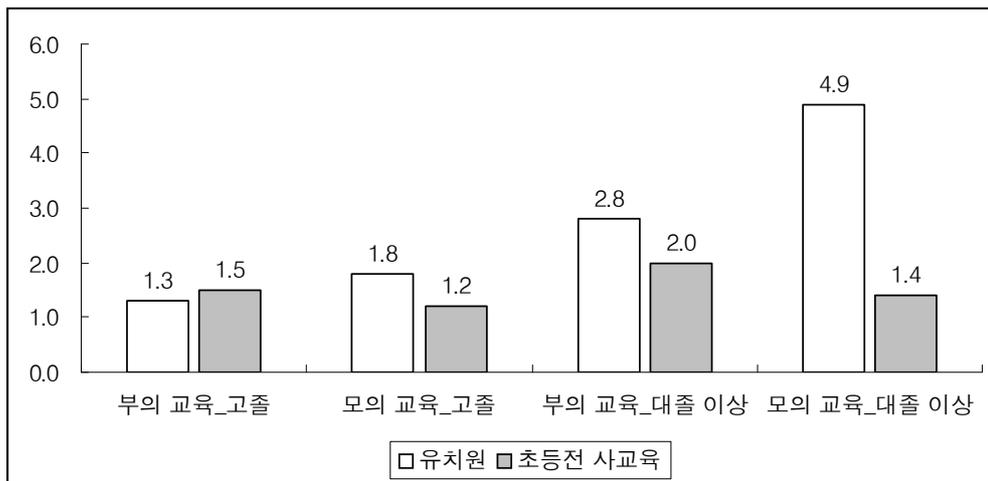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취원 여부에 있어서 여성이 취원할 가능성은 남성에 비해 1.3(=Exp[.249])배 높고 초등 전 사교육 경험 가능성도 1.3(=Exp[.258])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의 유의수준으로 완화해서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1.3(=Exp[.27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다만, 고등교육의 경우 여전히 교육기회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생애 초기 유아교육 경험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령코호트별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코호트(1990년 이후)의 유치원 취원 가능성은 가장 오래된 코호트(1974년 이전)보다 무려 10.2(=Exp[2.32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

른 경우에도 확인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경험 가능성의 경우 그것은 8.7(=Exp[2.158])배, 사교육 경험의 가능성의 경우 2.4(=Exp[.882])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경험 비율이 지난 시기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유치원과 사교육 경험에서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의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면 유치원에 취원할 가능성이 1.12(=Exp[.106])배 증가하고 모의 그것은 1.14(=Exp[.130])배 증가한다. 사교육의 경우 그것은 각각 1.09(=Exp[.084])배, 1.06(=Exp[.055])배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전문대 포함)졸 이상의 범주형 변수로 투입해 확률비를 비교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곧 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서 유치원에 취원할 가능성은 1.3배,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은 1.5배 높아지며 대졸 이상의 경우 각각 2.8배, 2.0배 높아지게 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유치원 취원 가능성은 더욱 뚜렷해지는데 고졸일 때 1.8배에서 대졸일 때 무려 4.9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중졸 이하의 부모 교육수준 대비 유치원 및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의 확률비
(단위: 배)



이어서 3세 때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미취업인 경우보다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79(=Exp[-.234])배 낮게 추정되고 있다. 곧 주부인 경우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전에 사교육을 시킬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 취원과 사교육 경험에서 형제자매수가 1명 늘어나면 유아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은 각각 .73(=Exp[-.317])배, .77(=Exp[-.258])배 낮아지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연구주제, 곧 가족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유아교육 경험 기회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유아교육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짓분석(상호작용모형)

독립변수	유치원 취원/ 미취원	어린이집 경험/ 미경험	사교육 경험/ 미경험
여성(vs. 남성)	.244(.094)*	.282(.163) [†]	.254(.088)**
1975-1979년(C1)	.864(.391)*	-.359(.987)	1.107(.492)*
1980-1984년(C2)	1.730(.481)***	.924(.987)	1.765(.536)**
1985-1989년(C3)	2.253(.560)***	.816(1.065)	1.669(.556)**
1990년 이후(C4)	.287(.933)	1.920(1.172)	1.344(.755) [†]
광역시(vs. 도)	.152(.094)	.252(.160)	.103(.086)
부의 교육	.080(.032)*	-.051(.100)	.142(.043)**
모의 교육	.138(.034)***	.012(.105)	.062(.041)
3세 때 모의 취업(vs. 미취업)	-.101(.096)	-.270(.175)	-.231(.093)*
형제자매수	-.321(.047)***	-.039(.098)	-.253(.053)***
C1*부의 교육	.060(.045)	.027(.125)	-.066(.056)
C2*부의 교육	.031(.053)	.118(.120)	-.056(.059)
C3*부의 교육	-.007(.077)	.076(.124)	-.075(.058)
C4*부의 교육	.027(.077)	.103(.122)	-.093(.065)
C1*모의 교육	-.041(.047)	.124(.134)	-.001(.056)
C2*모의 교육	-.015(.054)	-.051(.123)	-.056(.057)
C3*모의 교육	.006(.065)	-.004(.132)	.000(.060)
C4*모의 교육	.161(.094) [†]	-.067(.134)	.049(.074)
상수항	-2.087(.347)***	-3.929(.892)***	-3.174(.438)***
N(사례수)	3,310	3,310	3,310
-2 LL	3032.599	1337.457	3432.459
Chi-square	1364.679	100.498	397.104
d.f.	18	18	18
Pseudo R ² (Nagelkerke)	.460	.085	.165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 E.)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렇다면, 가족배경의 영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가 혹은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는가. <표 5>는 가족배경과 연령코호트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 모형에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의 적합도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이후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BIC⁶⁾를 통해 살펴보면, 유치원 모형의 경우 1275.808에서 1218.794로 적합도지수가 낮아졌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14.367에서 -45.386으로, 초등 전 사교육도 308.492에서 251.219로 낮아져 모든 경우 상호작용이 투입된 모형의

6) 이것은 라프터리(Raftery, 1986)에 의해 제안된 로짓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정보기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응용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모형을 의미한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BIC = Model \chi^2 - (model \text{ d.f.}) \times \ln(N)$

적합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치원 모형의 경우 가장 최근 코호트와 모의 교육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한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유치원 취원 여부에 있어서 모의 교육의 영향은 최근 증가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가족배경의 영향은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유치원 취원 여부와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고 뚜렷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가족배경의 영향은 지난 시기동안 교육 경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의 영향 분석(KYPS)

앞선 분석에서 가족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격차는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는데 만약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이후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생애 초기 교육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이미 선행 연구들은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윤경희, 1992).

<표 6> 유아교육 경험이 초 4 때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OLS분석)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유치원 경험(vs. 미경험)	1.703(.297)***	1.194(.268)***	.839(.256)**
어린이집 경험(vs. 미경험)	.166(.242)	.124(.218)	.098(.206)
초등전 사교육 경험(vs. 미경험)	1.085(.235)***	.827(.213)**	.663(.202)*
여성(vs. 남성)		.875(.190)**	.645(.182)**
서울지역(vs. 농촌지역)		.868(.397)*	.341(.381)
도시지역(서울제외)(vs. 농촌지역)		1.028(.346)**	.667(.330)*
자아존중감		.500(.023)***	.366(.024)***
초4 때 사교육 경험(vs. 미경험)		2.948(.416)***	1.962(.401)***
부의 교육			.163(.050)**
모의 교육			.112(.058)†
가구소득(자연대수)			.904(.203)***
아버지직업_관리전문직			-.008(.284)
형제자매수			-.010(.162)
부모애착도			.272(.023)***
상수항	28.803(.294)***	14.729(.717)***	4.441(1.172)***
N(사례수)	2,325	2,325	2,325
R ²	.023	.213	.298
Ad. R ²	.021	.211	.29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 E.)임.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여기에서는 KYPS 자료를 통해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생애 초기 교육 경험 변수들만을 포함한 모형으로 모형의 유치원 경험 여부와 초등전 사교육 경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2는 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들과 개인 특성 변수들을 투입한 경우로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유치원 변수와 초등전 사교육 변수는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3은 가족배경 변수들을 모형에 추가한 것으로 이 역시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치원 변수와 초등전 사교육 변수는 여전히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생애 초기 교육 경험의 독립적인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애 초기 유아교육이나 보육, 사교육 경험 여부가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유치원 취원 여부와 초등 전 사교육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매우 크고 뚜렷하였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된 가족배경의 영향은 지난 시기동안 교육 경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생애 초기 교육 및 보육 경험이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치원과 사교육 경험의 경우 개인 특성과 가족배경 변수들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생애 초기에 교육기회가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재원을 주로 부모가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유아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이 보장되기 어렵고 사회계층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다면 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체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만 5세 아부터 만 3세 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교육이 유치원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에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가족배경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교육성과에 역시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반면, 유치원은 사회계층간 격차가 분명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학부모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학부모의 선택이 계층화되어 있다면 생애 초기 단계에부터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원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가 취학 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 경험은 계층별로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서도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IMSS 자료를 이용하여 41개의 사교육 실태를 비교분석한 Baker et al.(2001)은 사교육의 근본적인 역할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강화전략(enrichment strategy)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얻고자 사교육을 받는 보강전략(remedial strategy)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교육을 받는지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41개국 중 한국, 루마니아, 태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의 역할이 보강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가정 형편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교육 역제가 쉽지 않다면 사교육의 역할이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사교육이 보강 역할을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은 강화 역할이 큰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좋은 학업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사교육 투자를 미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사교육을 받고 보는 관행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잉 중복투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유효하다면 사교육의 역할을 보강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통계연보』 .
-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농림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방안(안)』 .
- 교육혁신위원회. 2006. 『유아교육 공교육화 - 학제개편 제5차 토론회 자료집』 .
- 강상진·이영·주은희·남궁지영. 200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효과 비교.” 『아동교육연구』
24(4): 119-140.
- 김정효. 2007. “초등교육 학제 개편에 대한 검토: 유-5-3-4-4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0(2): 231-251.
- 여성부.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
- 윤경희. 1992.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1(1): 137-162.
- 최양미·이윤진. 2006. “‘교육기회균등’에서 벗어난 현행 학제.” 『아동교육연구』 26(5): 35-51.
- 홍순옥·최정희. 2007. “어머니 배경 변인에 따른 유치원 선택 요인.” 『아동학회지』 28(4): 51-71.
- Baker, David P., Motoko Akiba, Gerald K. LeTendre and Alexander W. Wiseman.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1-17.
- Blossfeld, H. and Shavit, Y. 1993. "Persisting Barriers: Chang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irteen Countries" edited by Shavit, Y. and Blossfeld, H.,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1-23.
- Bruner, C., Elias, C., Stein, D. and Schaefer, S. 2004. *Early Learning Left Out: An Examination
of Public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by Child Age*. DeMois, IA: Child
and Family Policy Center.
- Campbell, F. A. and Ramey, C. T. 1995. "Cognitive and School Outcomes for High-Risk
African-American Students at Middle Adolescence: Positive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 743-772.
- Cunha, Heckman, Lochner and Masterov. 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Ensminger, M. E. and Slusarcick, A. L. 1992. "Paths to High School Graduation or Dropout."
Sociology of Education 65: 9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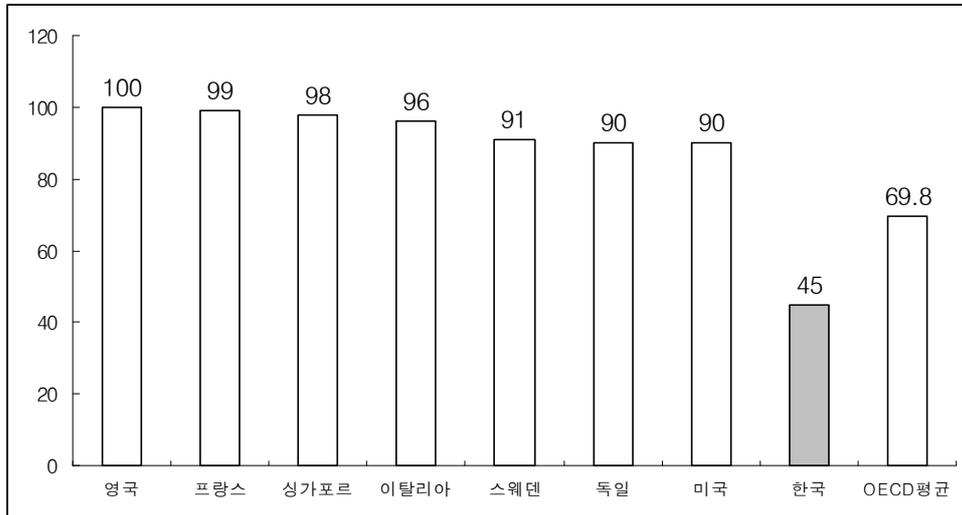
- Entwisle, D. R. and Alexander, K. L. 1992. "Summer Setback: Race, Poverty, School Composition, and Mathematics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72-84.
- Fryer, R. and Levitt, S. 2004. "Understanding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447-464.
- Hout, M, A. E. Raftery and E. O. Bell, 1993. "Making the Grade: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25-1989," edited by Shavit, Y. and Blossfeld, H.,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25-49.
- Mare, R. D. 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370): 295-305.
- Mare, R. D. 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Feb.): 72-87.
- Mare, R. D. 1993. "Educational Stratification on Observed and Unobserved Components of Family Background." edited by Shavit, Y. and Blossfeld, H.,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351-376.
- Müller, W., and W. Karle. 1993. "Social Selection in Educational System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9: 1-23.
- Lee, V. E. and Burkam, D. T. 2002. *Inequality at the Starting Gate: Social Background Differences in Achievement as Children Begin School*.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Lucas, S. R. 1996, "Selective Attrition in a Newly Hostile Regime: The Case of 1980 Sophomores." *Social Forces* 75: 511-533.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ffectively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1642-1690.
- Oden, S., Schweinhart, L. and Weikart, D. 2000. *Into Adulthood: A Study of the Effects of Head Start*.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OECD. 2005.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OECD. 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Paret, M. 2005. "Early Structures of Educational Opportunity: Social Background, Education Transition, and Equality Among a Cohort of American Kindergartners." The Summer Meeting of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RC28),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United States.
- Philips, M., Cruse, J. and Ralph, J. 1998. "Does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Widen after Children Enter School?" edited by Jencks, C. and Philips, M. *The Black-White Test Ga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Pp. 229-272.

- Philips, M.,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and Crane, J. 1998. "Family Background, Parenting Practices, and the Black-White Test Score Gap" edited by Jencks, C. and Philips, M. *The Black-White Test Ga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Pp. 103-146.
- Raftery, A. E. and M. Hout.,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19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Schweinhart, L. J. 2005.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Summary, Conclusion,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부록>

[부록 그림 1] OECD 국가별 만 5세아 유치원 취원율(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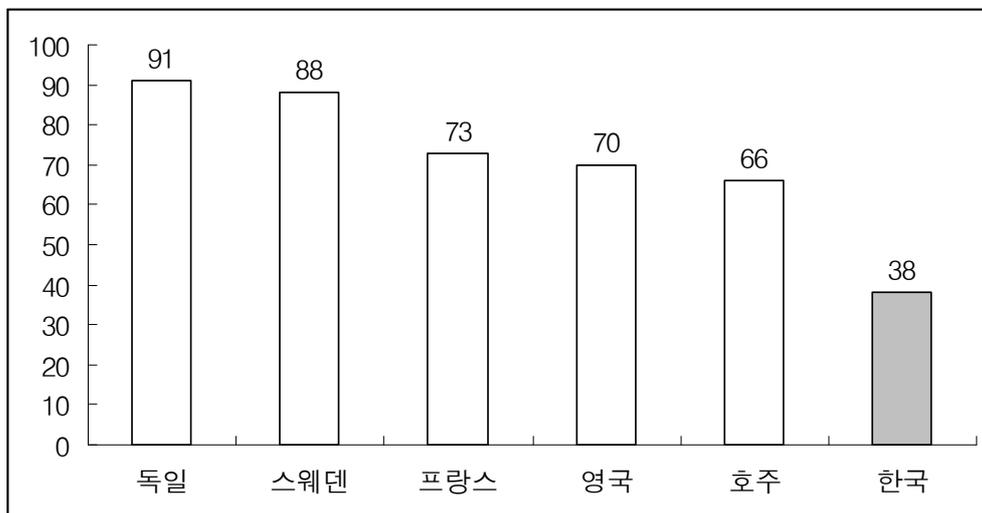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2006)

[부록 그림 2] OECD 국가별 보육·육아교육 재정부담률(200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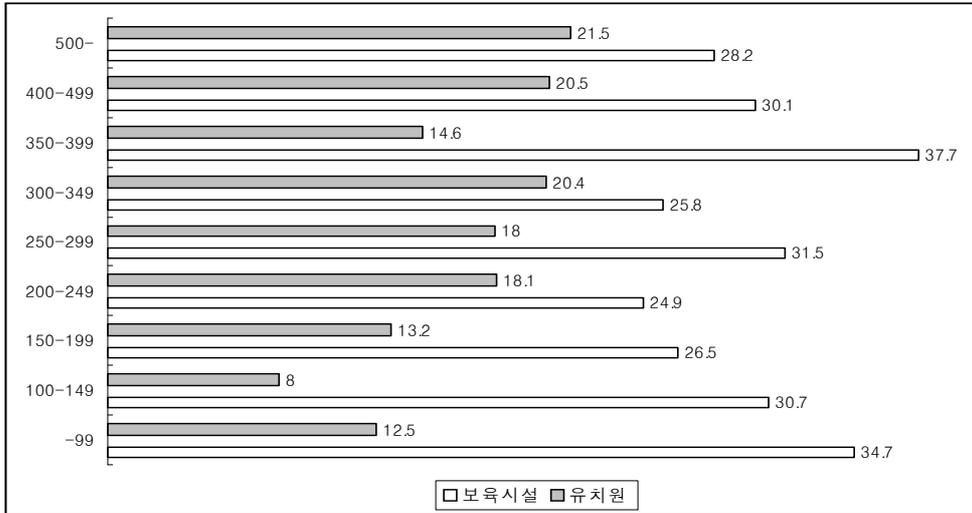


주: 한국은 2005년 통계임

출처: 여성가족부(2006)

[부록 그림 3] 가구소득별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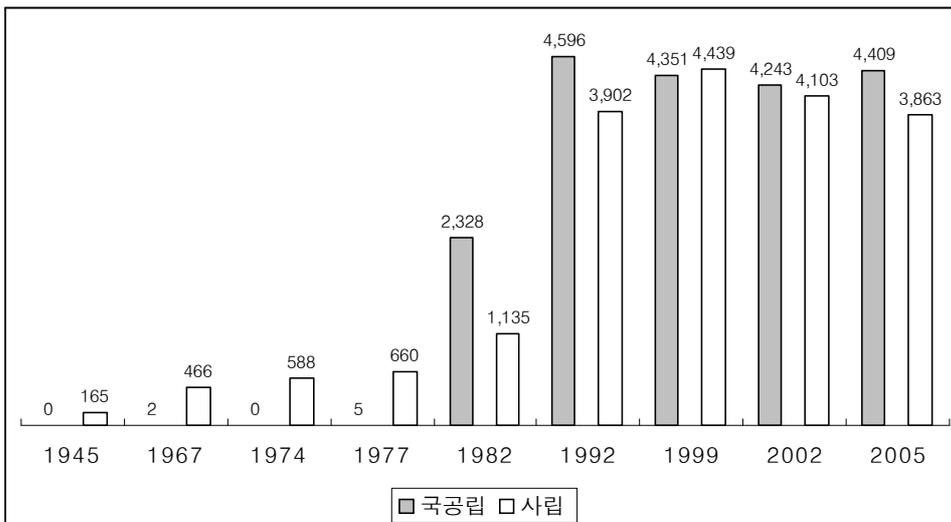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2006)

[부록 그림 4] 해방이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수의 변화 추이(1945-2005)

(단위: 개소수)



출처: 최양미·이윤진(2006)